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선군혁명의 승리로 빛내어나가기 위한 현명한 령도

최 명 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입니다. 우리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25권 114페이지)

항일혁명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와 맞서 싸운 혈전이였다.

일찌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시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력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무장대오의 조직과 강화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력으로 하여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계승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어나가시였다.

선군혁명의 승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불패의 군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신것이다.

우리 인민이 일제에 의하여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킬 강력한 군력이 없었기때문이다. 군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도,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도 지켜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강도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다시 찾아주신것이다.

백두밀림에서 항일의 총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시고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을 벌리던 조국해방전쟁의 불구름속에서 총대의 중요성을 깊이 체험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이끄시는 전기간 언제나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것을 인민군대사상사업의 기본방향, 기본목표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군이 항일의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며 최고사령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날 끊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길에서 몸소 군인들의 정치상학과 소박한 예술공연도 보아주시며 그들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투쟁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건설력사에서라도 있어보지 못한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하는데도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뿐만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으뜸인 세계적인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킬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식의 독특한 전략, 전술로 무장하고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격소멸할수 있는 위력한 공격수단과 믿음직한 방어수단들을 튼튼히 갖추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에 혁명적군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특히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준비시키는것을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강화의 중심고리로 내세우시였다.

인민군대에서 금성친위청호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군이 전투훈련을 강화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넣으며 훈련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교조주의, 도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주체성, 정치사상성, 전투성, 과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였다. 특히 현대전의 특성과 날로 로골화되는 적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인민군부대들에서 전투훈련의 강도를 높여나가도록 하시였다.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밑에 인민군대안에서 전투훈련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전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기 위한 선군령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속에 계시면서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며 지도해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군인들이 모든 전투임무를 높은 자립성과 창발성,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수행하며 그 어떤 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만능의 싸움군들로 자라나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시는 한편 자위적국방건설을 전인민적사업으로 전환시켜오시였다.

로농적위군을 비롯한 민간무력의 전투준비가 더욱 완성되고 온 나라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전변된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소왕청근거지를 비롯한 유격근거지들에서 전체 인민들을 무장시키고 근거지를 요새로 만들어 적들의 《토벌》을 격퇴하고 근거지를 사수하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 어떤 현대적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였다.

나라의 전반적인 군력이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불패의 군사적억제력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이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우리 인민을 또다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영예롭게 수호될 수 있었다.

1960년대에 미제의 무장간첩선이 나포되고 대형간첩비행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으며 해마다 수습, 수백차례씩 감행되어온 미제와 남조선피뢰군의 군사적무장도발책동은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이나 1990년대의 직송기사건과 서해해상사건, 2010년의 연평도사건과 같이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군사적대응을 받았다.

수십만의 병력과 첨단군사기술장비들을 동원하여 년례행사처럼 해마다 수차례씩 거듭된 적들의 모험적인 대규모전쟁연습소동도 매번 참패와 희비극을 남긴 실패한 전쟁연습으로 력사에 기록을 남기었다.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짓밟혔던 우리 조국이 존엄 높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되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더욱 빛나게 되었다.

선군혁명의 승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면서 펼치시고 무르익히신 구상은 조국땅우에 인민이 주인으로 되어 행복하게 사는 부강한 나라를 일떠세우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깊은 밤 밀영의 모닥불가에서 부강조국의 앞날을 설계하시였으며 유격근거지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혁명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투쟁은 곧 부강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에 맞게 인민군대를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문들에 달려나가 대담한 공격정신과 사생결단의 의지, 결사관철의 투지로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뚫고 비약과 혁신의 폭풍을 일으켰으며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웠다.

축산과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과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서도,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생활문화를 확립하는데서도 인민군대가 온 사회의 본보기로 되였다.

이 과정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인민군대는 시대의 전진을 선도해나가는 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가는 인민군대가 모든 분야에서 본보기가 되고 온 사회

에 인민군군인들처럼 사고하고 실천해나가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이 튼튼한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 인민의 혼연일체로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운명공동체로 더욱 굳게 뭉치게 되었다.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위력이 높이 발휘됨으로써 정치와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었다.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과 그 구현인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 강선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올랐으며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활로가 열려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의 리상과 꿈이 희한한 현실로 펼쳐지게 되었다.

성강과 김철에서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의 만세소리가 터져오르고 16년만에 비날론폭포가 쏟아져 온 나라의 대경사를 맞이하였으며 우리의 CNC기술이 첨단을 확고히 돌파하고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획기적으로 장성하여 전반적인 공업부문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원산청년발전소, 미루벌물길, 만수대거리살림집과 같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었으며 수많은 협동농장들이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는 리상촌으로 전변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날에 날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사변들이 련이어 이룩되었다.

이 자랑스런 결실은 항일의 눈보라속에서도 우리 조국을 세상에 으뜸가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어버이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체현하시고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었다.

선군혁명의 승리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나가신것이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서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이 너무도 뜻밖에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하였던 그 시기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이어 무너진 이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은 극도에 이르러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백주에 폭탄세례를 받아 폐허로 되고 무고한 인민들의 피가 휘뿌려지는 가슴아픈 사태가 련발하고있었다.

조선반도에서는 우리 공화국과 미국을 위시로 하는 세계반동연합세력간의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전이 벌어졌다.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시간을 따져가며 그 존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으로 다져진 불패의 군력에 기초하여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시고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었다.

원래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주체83(1994)년 7월 평양에서 열리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조국통일의 앞길에 전환적국면이 펼쳐지고있던 그 역사적시각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우리결을 떠나시였으니 많은 사람들은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진행되지 못할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전면중지하는것이 아니라 일단 연기한다는것을 남조선당국에 통보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최고위급회담의 유효성을 천명하는 애국애족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중대 조치로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을 받들어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기어이 성사시키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발현 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선군의 위력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화된 내외정세와 북남 관계를 통찰하시고 주체89(2000)년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해로 만드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통일외지, 담대한 결단에 의하여 주체89(2000)년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게 되었으며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주체96(2007)년 6월까지 북과 남사이에 수십차례의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였다.

주체92(2003)년 2월 개성-문산사이 름시도로가 개통되고 주체92(2003)년 6월과 주체96(2007)년 5월 북남동서해철도련결행사와 북남동서해철차개통을 위한 시험운행이 진행되였다. 나라의 지맥을 하나로 잇는 이 벅찬 현실은 대립과 갈등, 분렬의 세기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마련하는 뜻깊은 경사였으며 분렬의 철조망을 제끼고 통일의 길을 열어놓는 역사적장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포애적조치와 통일운동을 전면적국면으로 발전시키실 의지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건설과 금강산관광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북과 남사이에 다양한 체육 및 문화교류들도 진행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적리행을 위한 10.4선언이 채택되게 하시였다.

주체96(2007)년 10월에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으로 일관된 역사적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북남수뇌상봉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으로 되였다.

그러나 6.15통일시대에도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였다.

미제를 비롯한 외세가 한사코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고 그에 붙어 명을 유지하는 역

적들이 또한 기를 쓰고 방해해나선것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엄중한 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래일이 더 귀중하다는 크나큰 인내와 아량을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100(2011)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련합성명이 발표되였다.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지고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사업을 포함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것 등 4개 항목의 중대제안을 천명한 련합성명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를 지켜보던 남조선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에게 희망과 기대, 커다란 감명을 안겨주었다.

참으로 선군으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북과 남의 전국적범위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은 만천하에 떨쳐질것이다.

실마리어 조국해방업적, 조국통일